칼 럼

정 기 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품고 살자

희망(希望)이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고 죽음이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난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죽음뿐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며 일할 수 없어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품으면 죽음뿐이다. 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의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이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희망이다.

우리나라가 13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1등이 있다. 자살률 1위이다. 세계 2위와는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이다. 그런데 2위는 10만 명당 46명이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살 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고 7월 9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13일에 서울 시민 장을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왜 그리 많겠습니까? 못 먹어도 아니요, 못 살아서도 아니다. 희망이 없어서다.

굶주리는 사람, 굶주리는 가정에 쌀 한 가마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일이다. 굶주리는 가정에 쌀 한 가마니를 주면 굉장한 선물이지만, 두서너 달 후에는 빈 쌀가마니만 남고 다시 굶주리게 된다. 그러나 쌀가마니는 못 주어도 희망을 심어 주면 스스로 일어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희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희망을 배운 교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 희망을 퍼뜨려야 한다. 우리는 마을에서 일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희망을 만들어 전하는 희망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란 책이 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활약한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가 쓴 5권으로 된 책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를 희망의 철학자라 부른다.

그는 독일에서는 파시즘에 저항하느라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희망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의 희망의 철학에는 5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1)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먹고 산다. 2) 희망을 잃은 자는 이미 삶 자체를 잃은 자이다. 3) 희망은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4)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배워야 하고 연습하여야 얻어진다. 5)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Ernst Bloch의 희망 원리를 읽고 도전을 받은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다.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1926~)이란 신학자로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 철학에 도전을 받아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이란 저서에서 희망 신학을 체계화하였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는 희망의 주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뭇 영혼들에 희망을 심어 주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대로 잘났으며 희망을 품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정상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만들어 품고 살면서 하는 일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社　　說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정부가 주민주권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등이다. 또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요약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이 강화됐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의법'을 포함시키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나아가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제도개선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방차가 출동 시 앞차나 옆차의 양보가 없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사이렌소리, 경적소리, 확성기를 통한 차량유도 방송에도 소방차 앞에 줄줄이 선 차량들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거기에 골목길 등과 같이 좁은 통로에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도로의 의미가 없어진 곳도 많다.

화재나 심정지 환자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 사건 발생 5분 내외가 중요한데 5분 이상 경과되기 시작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나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또한 심정지환자의 소생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다.

물론 소방차의 등장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도,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차 출동 시 어떻게 길 터줘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확히 숙지해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하고, 둘째 일반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 번째 편도 3차선이상은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호한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숙박시설 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통로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실천하였으면 한다.

신종휴/관산119안전센터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